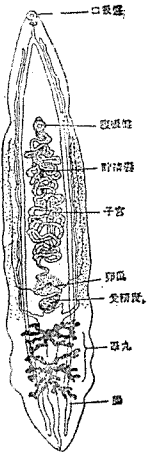


간디스토마



<간디스토마의 구조>

간디스토마의 생태

간장(肝臟)에 살고 있는 벌레에 디스토마라는 것이 있다. 이벌레는 1874년 인도의 칼카타에서 맥코넬이라는 사람이 중국인 간장에서 처음 발견한 것으로서 크로넨히스·지넨지스(Clonorhis Sinensis)라는 학명(學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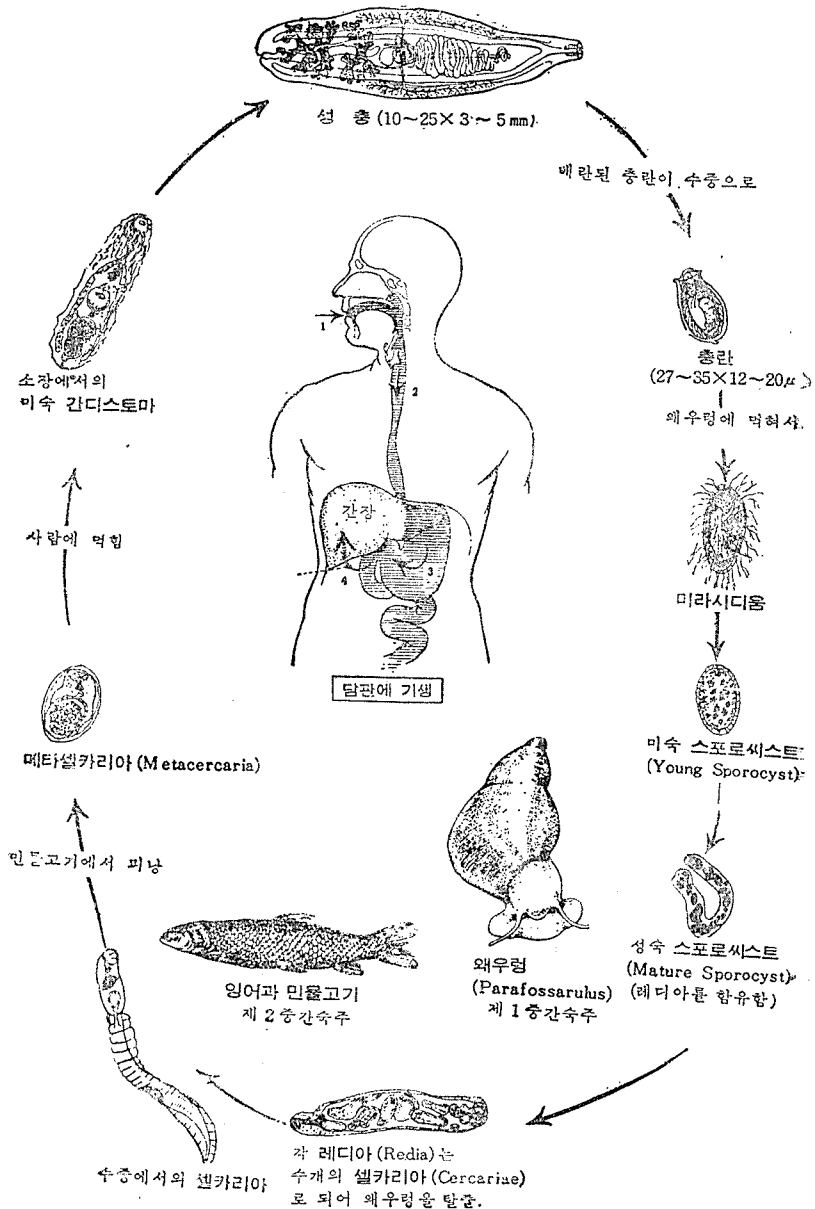
이 기생충은 번데기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밖과 안쪽에 입을 두개 가지고 있으며 10~25mm×3~5mm정도의 크기를 가진다. 벌레모양이 반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에 비추어 보면 내부구조가 보일정도이다.

디스토마의 인체 감염

다른 기생충과 같이 이벌레도 직접 인체내에서 번식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회충처럼 몸 밖으로 배설된 알(虫卵)을 다시 입으로 삼키거나 또는 십이지장충처럼 자연계에서 자연히 부화(孵化)한 아기 벌레가 피부로부터 들어 온다든가 그리고 입으로부터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과는 달리

이벌레는 몸속으로 들어와 간장에서 살기까지에는 반드시 두가지 종류의 중간숙주(中間宿主)를 거친다.

이벌레는 중간숙주의 몸속에 있으면서 인체에 감염할 정도로 자라는 것이다. 매변에 섞여서 인체에서 배설된 충란은 보통 강이나 호수등에 흘러 갔다고 하여 그대로 부화(孵化)



<간디스토마의 생활사>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부근에 살고 있는 제일 중간숙주인 왜우렁이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알을 까고 아기벌레가 되어 물속으로 나오게 된다.

이 아기 벌레가 물속에 있는 제2 중간 숙주인 거의 모든 종류의 민물고기(淡水魚)의 아가미에 파고 들어가 그 피하조직(皮下組織)이나 근육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에게 섭취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 이들 민물고기를 생으로 먹게 되면 비로소 인체내에 들어 오게 되는 것이다.

아기벌레는 식도, 위를 거쳐 12지장에 이르면 담즙에 닿게 되는데 이때 꺾질은 벗어버리고 아기벌레가 담즙이 흘러나오는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간장이나 담낭등에 기생하면서 간디스토마증세를 일으키는 것이다.

간디스토마의 피해

이처럼 간디스토마는 주로 간장에서 기생하는데 몇번씩 감염을 거듭하는 사이 벌레가 늘어나 마침내 담즙의 흐름을 멈추게 함으로서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물론 이러한 증상은 벌레가 많고

적은에 따라 증증 또는 경증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설사, 복통, 배가 붓거나 간장이 커져서 피부색이 누렇게 되고 빈혈, 복수(腹水), 비장(脾臟)확대등이 생긴다.

그리고 오래 계속되면 밤에 눈이 어두운 야맹증(夜盲症)이 일어나고 피를 토하거나 하혈(下血)을 하는 수도 있다.

또 기생충수가 많아 수천에 이른 것을 방치해 두면 처음에 늘어났던 간장이 오므라들어 호박껍질처럼 굴곡이 생기는 간경변(肝硬變)을 일으키게 된다. 이병은 잘 치료하지 않으면 배속에 물이 차고 비장이 늘어져서 결국 사망하고 마는 것이다.

옛날에는 간경변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았으나 치료법의 발달, 감염경로의 확인등에 따라 예방도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최근에는 중증현상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간디스토마감염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시(輕視)할 수는 없고 빈혈, 간기능저하, 또는 벌레주위에 침착된 담즙성분때문에 생기는 담석(膽石)으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간디스토마의 치료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간디스토마에 대한 구충제는 현재 적당한 내복약은 없고 주사약을 주로 쓰고 있다.

비교적 유효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는 안티몬제제인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스티프날이다. 0.3%용액을 1일 1회 5~10cc정도 천천히 정맥주사하고 1회 20~30cc까지 증량하면서 총 500cc정도에 이르기까지 매일 또는 격일로 주사하는 방법이 있으나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간디스토마치료는 아직 완전한 것이 알려지고 있지 않으므로 함부로 치료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에게 부탁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간디스토마의 예방

간디스토마를 예방하려면 호수나

하천, 강에서 살고 있는 민물고기를 절대 생식하지 않아야하고 이들 고기가 살고 있는 강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물고기가 죽었을 때도 야기벌레는 물속에 떠돌아 다니므로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도 강물을 먹게 되면 감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물고기를 먹을 때는 생으로 회를 해서 먹거나 덜 익혀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제 1충간숙주인 왜우렁이를 박멸하기 위하여 강이나 호수를 깨끗이 제초(除草)하여 민물고기가 그알을 쉽게 잡아 먹도록 하고 대나무나 싸리나무로 디스토마알이나 왜우렁이를 건져내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밖에 개, 고양이, 돼지, 들쥐, 토끼 등에도 쉽게 감염되므로 가축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